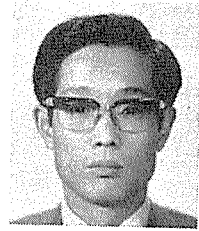


電子工業振興法の

改正을 보고



柳 榮 俊

韓國電子技術研究所 責任研究員

1981年 4月 13日자로 法律 第3436號에 의하여「電子工業振興法이」改正 公布되었다.

1969年 1月 28日 同法이 처음 制定 公布된 이래 최초로 改正되었다. 制定 당시와는 電子工業의 여건이 현격히 달라져 改正은 時宜適切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1970年代 物量面 에서 크게 확대되었으나 아직 工業의 質面이나 構造面에서 크게 改善을 요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共同行爲의 추진과 高技術 분야의 独占 適用 排除 등 일부 내용이 부족한 아쉬움이 없지 않으나, 대체로 그 줄거리는 만족할 만 하다고 판단된다.

第2條 第3號의 電子工業의 範圍에서 Computer의 Hardware와 Software 事業을 추가한 것은 主務部處가 二元化 되어 왔던 오랜 滯症을 풀어줄

것 같은 시원함을 느끼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 電子工業의 現況을 볼 때 가장 脆弱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全生産高에 있어서 1980年 家庭用이 40.2%, 産業用이 12.8%, 部品이 47%로서 家庭用과 部品の 比重이 너무 큰 반면, 産業用이 너무 미약하다 할 수 있다. 이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政府 및 政府 投資機關 등의 重要 需要者와의 協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第3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商工部長官과 關係機關의 長이 協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商工部長官의 國產化 推進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한 것은 그 施行 여하에 따라 그 效果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1979年 景氣後退 이래 우리나라 業界는 非只 電子工業뿐

아니라 他産業에 있어서도 新 製品의 出現 停滯, 技術 향상의 둔화, 生産性 향상의 제자리걸음으로 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는 技術導入의 促進, Design의 革新, 國內外 展示를 통한 Marketing 등이라 할 수 있다. 電子工業基金의 조성이 計劃대로 추진되든 않든지간에 이러한 대책을 해결하기 위한 第6條의 규정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특히 각 産業의 핵심이 되는 半導體工業의 育成 등을 위해 필요한 高價의 技術 導入時 Initial payment의 일부는 國家에서 지원해야 함을 감안할 때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이러한 조치가 가능토록 한 것 등은 크게 기대할 만하다.

앞으로의 政策은 종래와는 달리 短期的인 시야에서 탈피하여 長期的인 策策으로 이행 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第3條

의 규정에 의한 工業化의 단계 별 育成施策과 第14條의 규정에 의한 民間研究所의 育成支援을 겨냥한 特定 研究事業의 추진은 1990年代 先進國 접근을 위한 전초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금번 改正된 法에 의하여 이와 같은 政策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앞으로 學界, 業界, 研究所의 의견이 結集, 綜合된 Vision이 施行令과 施行規則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느껴진다. 이러한 觀點을 감안할 때 附則에서 정한 2個月 후의 施行은 그 기간이 좀 짧은 감이 없지 않다.

특히 第10條의 규정을 볼 때 이 法 추진에 있어서 강력한官의 개입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이의 범위를 施行令과 施行規



則에서 한정시키도록 政策上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 금번 改正된 電子工業 振興法에 관한 短見이며 앞으로 이의 合理的인 추진과 수행을 위하여 施行令과 施行規則案의 검토 과정에서 있어서도 이 法 改正時와 마찬가지로 關

聯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의견과 의지를 결집시킴으로써 1980年度에는 우리가 熟願하고 있는 電子工業의 振興이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 電子工業振興法 改正에 바란다 ● **特 輯**

電子工業振興會의

役割에 큰 期待



鄭 世 能

韓國테레비(株) 副社長